



1917년 지금의 충장로 4거리 광주우체국 자리에 들어선 광주우편국 건물. 1905년 일제의 한일통신협정으로 그동안 한국인이 관리했던 광주우편국과 전보사, 그리고 일본인들이 자체 운영했던 광주우편수취소가 광주우편국으로 통합됐다.



대구와 광주의 자본으로 설립된 광주전등주식회사 건물.

1917년 자혜의원에 광주 첫 전깃불 밝히다

〈現 전남대병원〉

국가기록원과 함께하는 남도 근대화 탐사



〈광주편〉

13. 우편·전기·전화 시대 개막

1888년, 다시 말해 강제병합 22년 전 이미 일제의 군부세력은 조선 반도 곳곳을 엿타며 그것을 책으로 남겼다. 칩락 야욕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이었다. 일본육군참모본부 작성 '조선지리지' 제8권이 바로 전라도편이며, 여기에는 당시의 광주목에 대해 소상히 적혀 있다.

이 서적에 따르면 광주목은 40개면(원래 41개면)에 호수는 7753호였으며, 읍성 내에 객사, 향청, 훈련청, 장청, 군기고, 대동청, 형방청, 공수청, 관노청, 의방 등이 있었다. 조선지리지에 중시해 다룬 것은 바로 역원(驛院)이다. 역은 당시 공문의 전달, 공무 여행자에 대한 마필 제공 등을 하는 기관이며, 원은 국립 숙박시설이다.

으로 한 읍사방(기례방면, 부동방면, 공수방면, 편방면)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밀집돼 있었다.

이 경양역은 1895년 지방제도개혁에 따라 부군제가 실시되고 1896년 광주군으로 귀속되면서 폐지되기에 이른다. 이는 조선시대, 아니 그 이전부터 대한제국시대까지 유지됐던 고유의 정보통신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기를 전후해 대한제국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변 열강의 영향으로 근대문물들이 물밀듯 들어오고 있다. 1884년 우정총국이 설치되면서 우리나라에 근대적 우편제도가 도입됐고, 이후 1896년 설치된 나주우체사가 1897년 말 광주로 이설되면서 광주도 이

락하기 위해 개통됐는데, 이후 1902년 한성~인천 간 시외전화, 1903년에 부산에 각각 전화시설이 설치됐다. 광주에 전화가 놓인 것은 1908년 7월로, 관공서 등 특설전화로 시작해 1911년 4월 요금만 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높은 요금 탓에 1917년 당시 시중 전화사용 가입자는 106구에 불과했으며, 교환수 3인이 3교대로 근무했다. 시외선으로 광주-목포 1번선, 광주-목포 2번선, 광주-나주선, 남원-광주선, 순천-광주선, 광주-장성선, 광주-보성 1번선, 광주-보성 2번선, 광주-남평선 등이 있었다. 시내 전화료는 매달 5원이었다. 1912년 통화 수는 21만1468건이었으며, 1924년에는 이보다 5배 가량 늘어난 119만211건이었다.

광주의 전깃불은 1917년 8월16일 처음으로 켜졌다. 1887년 공물에 전기가 들어온 지 30년 만이다. 이 전기는 지금의 달빛동맹(달구벌 대구와 빛고을 광주의 동맹)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일제가 부산~대구~경성으로 향하는 경부선을 따라 근대시설을 설치하면서 대구는 광주보다 일찍 근대도시로 발전했다. 이미 전기가 들어왔던 대구의 전기회사사장이 광주를 찾은 것은 1916년 상반기의 일이다. 여기서 지역유지들과 절충해 대구 자본과 광주 자본 등 5만원으로 광주전등주식회사가 1917년 4월 설립됐다. 시가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설치된 발전소에서는 모두 3500등을 점등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었고, 당시 1000개의 전등 수용자 중 자혜의원(지금의 전남대병원)이 95등, 감옥이 45등, 우편국이 35등을 사용했다. 1937년 3월9일 당시 광주에는 전주 1357개, 가로등 1379개가 운용되고 있었다. 또 당시 전기는 169가구에 공급되는 등 일본인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누릴 수 있었던 근대문물이었다.

／원천석기자 chadol@kwangju.co.kr

충장로 4거리 광주우체국 들어서 95년째 명맥

광주 106구에 전화 설치...매달 사용료는 5원

전기, 공공시설 집중...일본인 169가구만 혜택

이 역원은 수도인 한성에서 지방에 이르는 주요 도로에 약 30리마다 설치됐으며 전국에 500여 개소가 있었다. 일제는 조선시대 정부의 핵심거점인 역원을 예의주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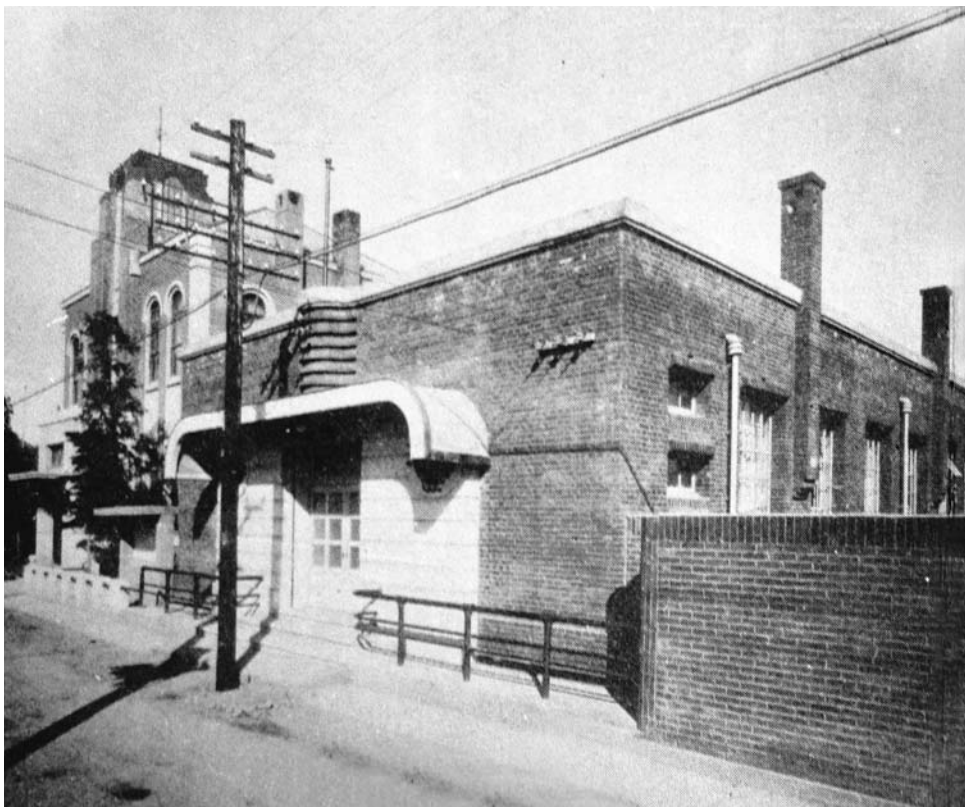
광주에는 경양방죽이라는 명칭을 만들어낸 경양역, 선암역, 수어원, 증원, 최정원, 저원, 보통원, 분수원, 장록원, 견암원, 혈보원, 누문원, 극락원, 진국원, 신원 등이 있었다. 2역13원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 서적은 읍성에서 이 역원까지의 거리까지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이중 가장 으뜸은 단연 경양역이었다. 경양역에는 1명의 찰방을 중심으로 23명의 역리와 5명의 노비가 있었으며, 주변 6개의 역을 총괄하고 있었다. 그 주변에 펼쳐진 논밭은 이 역의 운영 경비를 대는 역근토였으며, 경양역(경양면이라고도 했다)은 광주읍성 내 성내면을 중심

우편제도를 실시했다. 그러나 8년 만인 1905년 한일통신협정에 의해 일제가 한국통신기관들의 위탁운영에 나섰고, 같은 해 8월 기존의 광주우편국 및 전보사가 일본인에게 넘겨졌다.

여기에 이미 광주에 진출해 있던 일본인들이 자체 운영했던 광주우편수취소를 합쳐 탄생한 것이 '광주우편국'이다. 개항장인 목포우편국의 광주출장소였던 이 광주우편국은 낱알이 성장을 거듭해 1917년 지금의 충장로 4거리 광주우체국 자리에 들어선 뒤 95년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1912년 광주우편국은 편지와 소포를 합쳐 198만8892건, 12년 뒤인 1924년에는 그 2배에 육박하는 335만1194건을 처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화가 사용되기 시작한 해는, 1896년이다. 당시 근대부 주관으로 궁중과 정부기관 사이를 연

▲도움말 주신 분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봉수 동강대 건축과 교수, 윤희철 국가기록원 직원
▲이 기사는 국가기록원·광주시·전라남도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광주에 진출한 일본인들은 1908년 광주신보라는 이름의 주간지를 창간하고 곧이어 이를 광주일보로 개명했다. 당시 목포신보, 조선사상통신 등 지역 언론사들이 있었으며, 광주일보라는 명칭은 이 때 최초 사용되기 시작했다. 사진은 1927년 신축된 광주일보 사옥.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선도하는 아리랑하우스의 여름특선메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역시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입니다!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계림동 출플러스 건너편)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